

뉴멕시코주
한인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6/7월호

Jun/July 2010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ALBUQUERQUE

[한인회 소식]

1.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뉴멕시코주 한인회의 피크닉(Don Juan de Onate Park)을 가졌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날씨가 좋지 않은 가운데에도 6.25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재외 각 공공재단의 귀빈 참석 및 많은 교민들이 참석하여 약 150여명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게임과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에게는 한인회와 교역자 협의회가 함께 준비한 식사와 다과를 나누었고, 보물찾기와 OX게임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에 협조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진1 참조)

2. 지난 5월 9일 알버커키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 현재 일본에서 홈레스 피플을 위한 선교활동을 하시는 박인배 선교사님을 모시고 뉴멕시코주 교역자 협의회가 주최하는 선교보고가 침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진2 참조)

3. 어버이회모임: 윤태자님 댁에서의 5월 20일 모임 후, 무더운 여름 기간 동안 잠시 쉬다가 다시 모이기로 하겠습니다. 무더위 동안 건강하시고 더욱 밝고 화합된 모습으로 다함께 모이시기를 기대합니다. (사진3 참조)

4. 졸업 아시안들의 대축제인 아시안 페스티벌이 지난 5월 16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Harry E. Kinney Civic Plaza Marquette & 4th St. NW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해에는 부스를 마련하여 김밥을 판매하였고 이선화 예술부장님의 공연과 어린이들의 부채춤공연, 고전의상 패션쇼 등 다양한 한국문화 알리기 순서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졸업을 축하합니다.

: 김형섭UNM한국학생회장 UNM 졸업 / 임성재 한국학교교사 Monzano

특별부흥집회

주제: 오직 말씀으로
7월 8일(목) - 11일(일)

저희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경인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1990년도에 남미 볼리비아에서 원주민 선교를 시작하셔서 현재까지 엄청난 결실을 맺고 계신 최천휴 선교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알버커키 지역에 계신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 강사: 최천휴 선교사

❖ 발레 에르모소 교회 담임

❖ 코차밤바 신학교 교장

■ 일시: 2010년 7월8일(목)-11일(일)

7/8(목) 오전5:30 저녁7:30

7/9(금) 오전5:30 저녁7:30

7/10(토) 오전6:00 저녁7:30

7/11(일) 오전11:00 저녁7:00

■ 장소: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집회참석시 지참 도구

성경책

노트와 필기도구

*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강론하실 예정입니다.





(사진1) 특별출연- 마우리(MAORI) 뉴질랜드 댄스팀 / 공공재단의 귀빈 참석 / 게임 / 식사 / 참석하신 분들에게 증정된 선물)

볼리비아 선교 사역 소개



(사진2) 은혜로운 시간을 마친 후 유난히 환한 얼굴의 아름다운 모습들 / 목사님 목회 당시 성도들의 은혜로운 특별찬양



(사진3) 5월 어버이회 모임

할렐루야...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는 선교 동역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중들을 통해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소개하게 되어 너무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 드립니다. 비록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자세하게 들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짧은 소개일지라도 볼리비아를 조금이나마 더 알려 드릴 기회라 여기며 간단한 사역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볼리비아는 남한의 11배가 큰 나라이며, 남미 대륙의 심장부이며 안데스 산맥에 걸쳐있는 나라입니다. 열대 평원부터 5000미터가 넘는 안데스 산맥의 고산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파라과이, 칠레 이렇게 다섯 나라가 주변에 국경으로 둘러져 있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고 통계상으로는 800만이지만 실제로는 천만이 조금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종족은 백인(400년간 스페인에 지배당함), 혼혈, 원주민(남미 인디언)들이고, 언어는 공식어로는 스페인어, 그리고 케추아, 아이마라, 과라니 등의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 복음 장로교단의 역사

1989년 최양휴, 1990년 최천후 쌍둥이 선교사가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에 도착해 스페인어를 배우면서 세들어 살던 집에서 몇몇의 초창기 제자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90년 말 지금의 본부로 있는 코차밤바 시로 옮기면서 본격적인 제자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1996년까지 나무 밑에서 길거리 가로등 밑에서 햇빛 아래서 비를 맞으면서 일정한 예배 처소가 없었던 관계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제 10개의 교회와 25개의 제자방을 형성해 800여명의 성도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1996년 12월 현재의 본부가 위치한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1998년 정부에 법인체 인가와 신학교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볼리비아 전역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2001년 최양휴 선교사가 산타 크루스(Santa Cruz) 주에서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2005년 오루로(Oruro), 라파스(La Paz), 스페인으로 볼리비아 현 지인 제자 Juan Kennedy Arancivia를 파송 했으

며, 2007년 수끄레(Sucre), 포토시(Potosi)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교단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사역이 요구되어짐에 2007년 정부에 사단법인 Multidisciplinaria Promise 인가를 내었고 학교, 병원, 고아원, 양로원 등을 운영할 모든 계획을 체계화 했으나, 후원처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는 40명의 신학생과 20개 교회 6개 주 2500 여명의 성도가 있으며 우리의 목표는 볼리비아를 통해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제자장로교단 산하에 속한 것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파를 목표로 합니다. 지난 19년간의 제자 사역을 통한 결과, 우리는 학원사역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도 철저한 그리스도의 일꾼을 배출해 내는 방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제도와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한-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는 일반학과 공부, 그리고 저녁에 기도와 영성 훈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 볼리비아 및 전 세계로 파송해 복음의 일꾼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직하고 아름다운 거짓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학교는 코차밤바에서 시작 되어 전체 볼리비아 9개 주에 확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점차 이루어 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 동안 삼아온 평신도 제자 중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키워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 전파의 지름길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2009년 4월부터 어린이 천국복음학교(Escuela Biblica Celestial)를 개설해 어린이 사역을 집중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루 4시간 수업제도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길지 않아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학교 후 시간을 TV와 오락에 낭비하고 있고, 부모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고 날 품팔이를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너무 소홀한 상황이라, 교회 주변의 어린이들 600여명을 모집해서 부모들과 함께 등록을 하고 CDI라는 자선 단체에 등록을 해 그들과 손잡고 600여명 어린이들

을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 그들에게 간식과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말씀과 기도를 가르치며 일반 학과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자그마한 도서관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발레 에르모소, 푸엔테 디비나, 사까자 세 곳의 교회에서 천국 복음학교가 실시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회주변의 불신자가정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그들 부모들도 자연스럽게 교회로 전도 되어져 복음전파의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소속된 모습을 보이고 그들과 융화되기 위해 이번 발레 에르모소 교회 헌당예배를 계기로 교회 주변의 그린벨트로 묶인 땅을 마을 주민들과 시청의 동의를 얻어 기증 받아서 그 곳에 자그마한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마을에 다시 기증했습니다. 볼리비아는 아직까지 도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시 외곽 지역은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흙바닥에서 생활하고 물차를 통해 물을 사먹고 있고,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목욕은 고사하고 물차에서 산 물을 그대로 마시기 때문에 수많은 어린이들과 노인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노동자층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발육 상태가 고르지 못합니다. 영양이 부족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과 오갈 데 없이 버려진 3세대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적 신체적 성장 및 정서적 문화적인 환경개선을 돕기 위해 기증 받은 그린벨트 땅에 병원과 마을 회관 고아원 양로원을 세워 이 사역들을 통해 병인들과 노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 하는 사역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학교는 코차밤바 1개 (센터)-최 천후 선교사 담당, 산타크루스 1개-최양후 선교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미혼들은 모두 신학교 내 기숙사 생활, 기혼자들은 각자 섬기는 교회 근처 또는 교회 내에서 생활하며, 식사는 원주민 교회 (선교부 소속) 성도님들이 모두 섬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 마카로니, 감자, 밀가루, 설탕 등 신학교 기숙사 식사를 위한 모든 것을 성도님들이 모두 가지고 와서 항상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수는 볼리비아 전체 9개 주 중에 6개 주에 퍼져 있습니다. 코차밤바는 선교부의 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12곳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외 산타 크루스 4곳, 오루로 1곳, 라파스 1곳, 수끄레 1곳, 포토시 1곳 이렇게 총 20곳입니다. 그리고 3년 전 저희 선교부에서 케네디 목사를 첫 볼리비아 원

주민 선교사로 스페인에 파송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마르가리타 전도사와 결혼해서 지금은 둘이 함께 스페인 세빌라 지방에 1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코차밤바■

(교인수는 제자방과 가정교회 교인수 포함 전체) 전체 교인수는 약 2300여명입니다.

◇발레 에르모소 교회-최천후 선교사, 약 150 명, 96년 3월 4일 개척. 2008년 6월 13일 10년 동안의 건축을 마치고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발레 에르모소 교회는 10년 전 최천후 선교사가 발레 에르모소라는 마을에 학교 담벼락 밑에서 서너 명의 어린 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들의 부모들이 전도 되고 차차 여러 가정들이 전도 되어져 가정 예배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저희는 이런 예배 형태를 제자방이라 부릅니다). 그 후 점점 모여 지는 수가 많아지면서 성도들의 집과 동네 한 모퉁이 등 이렇게 열 번 이리 저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예배드리다가 현재의 교회 땅을 사고 오늘날 건축이 완공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팔고 노동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그들의 피와 땀으로 많은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과 창문을 위해 외부에서 지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을 발레 에르모소 교회 성도들의 힘으로 건축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제 발레 에르모소 교회가 모델이 되어 선교부의 아직 건축 되어지지 못한 교회들이 더 힘을 얻으며 교회 건축에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푸엔테 디비나 교회-마카리오 목사(기혼, 자녀 4명), 2005년 7월 4일 개척. 교회 땅 있으나 교회 건물 없음. 이제 교회 건축 시작함.

◇페니엘 교회-에프라임 목사(기혼, 자녀 2명), 미리암 전도사, 98년 1월 2일 개척. 교회 땅 없고 안토니오 형제 집에서 예배드림.

◇빌라 아르모니아 교회-다윗 전도사(기혼, 자녀 5명), 96년 3월 4일 개척. 교회 땅 있으나 현재 전세로 예배드림.

◇빌라 깔라마 교회-라울 전도사(기혼, 자녀 1명), 나이다 전도사, 99년 9월 19일 개척. 현재 전세로 예배드림. 교회 땅 없음.

◇사까바 교회-베디 전도사, 96년 7월 13일 개척, 교회 땅 있고, 아직 교회 건물 없음. 방 세 개짜

리 교육관이 완공되어 교회 건축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 까지 새로 지어진 교육관에서 예배드림.

◇바로따니 교회-베니그노 전도사, 98년 5월 3일 개척, 아직 교회 땅 없고,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뜨라팔 갈 교회-프레디 전도사, 2005년 6월 27일 개척, 교회 땅 있고 건물은 1층만 지어진 상태.

◇꼴빠밤 바 교회-오스카 전도사, 실비아 전도사, 96년 3월 3일 개척. 교회 땅 없고 다윗 전도사님 집을 빌려서 예배드림.

◇쁘리메 르 데 마요 교회-아델라 전도사, 2000년 9월 22일 개척. 교회 땅 있으나, 교회 건물 없어서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몬테 시나이 교회-이밀리오 전도사, 96년 3월 9일 개척 이전 벨라 크루스 교회에서 몬테 시나이 교회로 이름 바꿈. 교회 땅 있고 교회 건물 작은 단층짜리 있음.

◇짜빠레 찰모레 교회-브루덴시오 전도사(기혼 자녀 4명), 96년 6월 18일 개척, 교회 땅 있고 바나나 나뭇잎으로 만든 예배 장소 있음.

■산타 크루스■

◇꼴로라 다 교회-최양후 선교사, 마그다 ,히메나, 구스타보, 까초 전도사, 2001년 2월 13일 개척. 교회 땅 있고 현재 건축 중.

◇엘 푸에르테 교회-헤르만, 크리스티나 전도사 부부(기혼, 자녀 5명), 2006년 10월 1일 개척. 교회 땅 없음.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시우닷 사텔리테 교회-윌리 전도사(기혼, 자녀 2명), 2006년 10월 1일 개척, 교회 땅 없고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플란 드레스 밀 교회-쥬니 전도사(기혼, 자녀 1명), 2006년 6월 2일 개척, 교회 땅 없고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이스마 엘 전도사-개척 중

◇오루로 교회-알레한드로 목사(기혼, 자녀 1명), 2003년 5월 개척. 교회 땅 있고 건축 중.

◇라파스 교회-펠릭스 라우라 전도사(기혼, 자녀 4명), 2005년 1월 14일 개척, 교회 땅 없고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수끄레 교회-엘로이 목사(기혼, 자녀 4명), 2006년 1월 23일 개척. 교회 땅 없고, 남의 집 월세로 예배 드림.

◇포도시 교회-옴베르토, 엘리사벳 전도사 부부(자녀 1명), 2006년 10월 26일 개척, 교회 땅 없고 교인 집에서 예배드림.

{에세이}

귀한 손님

이 정 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지난 4월이었습니
다. 뒤뜰에 가설해 둔
가지보(철근 뼈대에
위를 비닐로 덮은 정
자 같은 건물)의 비닐
지붕이 이 지방 특유
의 강한 바람을 이기
지 못해 갈기갈기 찢
겨 나간 뒤, 그 자리



를 덮어 햇볕을 가려볼 양으로 등나무 두 그루를 사
다가 양쪽 귀퉁이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심자마자
가느다란 가지들로 가지보의 철근을 서너 번씩 놀랄
만큼 힘차게 감고 오르던 등나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시에 성장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잎이
노래지거나 마르지 않는 걸로 보아 죽을 염려는 없
겠구나 했지만, 잘 길러서 빨리 벌을 가리고 싶은 마
음에 연유를 알아보니, 새로운 부리를 만들기 위해
성장을 멈춘 것이며 일단 부리가 튼튼해지면 그 때
다시 위로 자라기 시작하는 아주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때마침 닥친 심한 가뭄에
마르지 않도록 물을 주고, 너무 약해서 제대로 자라
지 못할 성 싶은 가지는 잘라주며, 바람을 너무 타지
않게 철사로 가지를 고정시켜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것처럼 숨죽은 듯 지내던 등나무가
심은 지 두 달 반이 되자 활기를 되찾으면서 가지 끝
마다 새잎을 힘차게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연한
초록색 잎이 한없이 예뻐서 틈만 나면 문을 열고 나
가 어루만져주고는 했지요.

한 보름 후였을까 어느 날 아침 바로 그 새잎을 찾
아 날아든 귀한 손님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등나무 잎사귀 사이 철근 위에 미중도 없이 앉아있
는 메뚜기를 보는 순간 반가움과 함께 저의 마음은
바로 수십 년 전 어릴 때로 돌아갔습니다. 벼가 막
익기 시작하는 고향 나주평야 한쪽 넓은 들판을 걸
으면서 사방으로 뛰어 달아나는 메뚜기를 보고 있었
던 것입니다. 문득 정신이 들 어 카메라를 찾아 들고
다시 조심스럽게 녀석에게 다가가면서는 그 사이 자



■스페인■

-케네디 목사, 마르가리타 전도사 부부, 2004년 9월 30일 개척. 현재 케네디 선교사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임.

그리고, 저희 두 선교사들은 각각 1989, 1990년 칼빈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이곳 볼리비아 선교지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했으며, 1995년 대한 예수교장로회 경인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리를 떠버렸으면 어쩌나 조바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녀석은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포즈까지 멋지게 취해주었습니다.

뒤뜰에는 몇 가지 미물이 우리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야외욕조를 받치는 갑판 아래에는 커다란 개구리 한마리가 살면서 가끔 담을 넘어 옆집까지 왕래합니다. 여름이면 도마뱀들이 담장을 오르내리며 날벌레를 먹습니다. 가을에는 여치와 귀뚜라미가 더러 집안까지 찾아 들어 밤새 노래를 불러줍니다. 애써 가꾸는 채송화만 골라 먹어버린다고 집사람이 불평하는 달팽이도 때가 되면 어김없이 눈에 뜹니다. 그러나 이번에 온 귀한 손님은 너무 뜻밖이었지요. 작년 여름 내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데다가 사방이 집뿐인 주택가 한복판에 나타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행여 놀랄세라 염려하면서도 자꾸만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앙증스러운 모습이 보고 싶기도 하려니와, 혹 다른 곳으로 가버리지 않았나 걱정도 되어서지요. 이란에서는 반드시 손님에게 최고의 지위를 부여하고, 가장 달고 맛있는 과일을 대접하며, 가장 안락한 곳에 앉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 내 마음을 녀석이 알기나 할까? '아무리 좋은 생선도 사흘 지나면 냄새 난다'는 말뜻을 녀석이 알아차려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저는 요즘 이런저런 생각 속에 녀석과 한 울안에서 사는 재미를 톡톡히 맛보고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주시는 최대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18 참조)

신경일 목사
UNM Hospital Chaplain
뉴멕시코 대학병원 원목

교회 성장학 모교수의 Survey에서 다음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서 지난 50년 동안 첫째 교인 감소(Reduction of Believer), 둘째 노화 현상(getting old), 셋째로 변화 거부(Refusal of Change)였다고 하면서 향후 30년에는 많은 교회가 죽었음을 상징하는 묘비가 줄줄이 생길 것이라고

Hi Tech 교회 안내판이 새로이 등장하여 새로운 예배 스타일을 추구하는 나머지, Drive In Worship, 애완견 예배, Internet 예배, Cow boy 예배 등이 등장할 것이라 합니다.

Iowa주 Metropolitan Church에서는 주일 오전 10시에서 정오까지 Drive Thru Church를 열고 있으며 각 차량들이 예배에 걸리는 시간은 단 5분이며 목회자들은 천사복장을 하고 차들이 들어오는 길목에서 성경구절을 나누어주고 세례교인이면 누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성찬 포도주와 빵은 작은 박스에 담겨 차로 배달되면서 예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Christian Times에 의하면 미국의 고교졸업생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면 85% 대다수 학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등지고 소위 말하는 Post-Modernism에 빠져서 다른 종교(Mormonism, Islam, Jehovah's witness, 다원주의 등)에 심취함으로 그들의 앞날과 국가의 장래가 심히 염려됩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여 현상 유지적 교회로 탈락하여 선교를 소홀히 할 때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기도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생동함으로 현상 유지적 교회에서 선교 지향적 교회로 나아갈 때 Selfish Church가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마태 5:13~14)

성 Augustine은 말하기를 "밀알이 다 깨어져 밀가루와 물로 반죽되고 불에 들어가 잘 구워진 다음 찢어져 나누어지듯 교회도 세상 구원 위해 나누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2:24)

미국의 경제적인 위기로 노숙자(Homeless)들과 극빈자들이 증가 일로(전 미국 744,000여명, Albuquerque에만 5,000여명)에 있으며 타 종교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들어 지역 선교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13년 전부터 "지역 선교는 곧 세계 선교"라는 기치를 걸고 선교 Paradigm의 도래를 강하게 역설해 온 '평화 나눔 공동체'의 사역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믿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 이웃을 외면하면서 막대한 시간과 재정을 들여 해외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마태 22:39),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

되는 일이 아닌가? 우리의 선교 현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입니다. 모 Christian Times에 의하면 미국이 3번째의 선교 대상국이라고 하니, 우리 Christian에게 향한 Wake up-call인 줄 믿습니다.

지역 선교(Home Mission)가 빠진 해외선교에 너무 치우친 사이에 반기독교 운동의 확산, 이단 종파의 성장, 젊은 세대의 무종교화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볼 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와 영적인 재무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선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선교의 영역을 넓히는 것이며,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일하는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민 교회가 선교를 지원하는 후방이란 인식을 버리고 '선교 전방'의 의식을 갖고 선교 지향적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초대 교회와 같은 생동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풍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선교는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정적 실수입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듯이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도 늘 아쉬움과 모자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8:10-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수년전에 한국의 분당의 모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Afganistan에서 사역하다가 선교팀 모두가 Taliban에 납치되어 인솔 목사님과 평신도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은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외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선교 전략(Mission Strategy)을 세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 16:15)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고 선교에 임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뉴멕시코주 관광안내}

페트로그리프 내셔널 모뉴먼트 (Petroglyph National Monument)

이경화 장로

페트로(Petro)는 돌, 암석이란 뜻을 가졌고 Glyph는 그림 또는 도형이란 뜻을 가졌다. Petroglyph는 곳 바위에 새겨 그린 그림이란 뜻이 된다. 알버커키의 서쪽에 있는 언덕위의 지평선을 보면 다섯 개의 화산 흔적이 보인다. 화산 밑에는 화산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메사(Mesa) 언덕이 넓게 자리잡은 것을 본다. “Mesa”란 원래는 스페인어로서 영어의 “Table”이란 단어에 해당되는데 언덕 또는 산위가 Table처럼 평평한 지형을 가리켜 “Mesa”라고 부른다. 리오그란데 강 서편의 언덕을 West Mesa라고 부른다. Mesa가 가진 또 한가지 특징은 언덕과 평지가 만나는 경계가 급경사로 된 것이다. 이 부분에는 용암이 부서져서 된 까만색 또는 진한 갈색(brown)의 현무암(Basalt)의 암석으로 덮여 있는데 옛날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현무암 암석에 많은 그림을 새겨 놓았다. 돌에 새긴 그림, Petroglyph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함을 연방정부에 꾸준히 건의하고 또 일반사회에 알리는 일에 노력한 결과, 1990년 National Monument 공원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알버커키의 Open Space Division과 National Park Service가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공원지역은 푸에블로 원주민들이 종교적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곳이다. 공원의 동쪽 17마일에 이르는 메사 언덕에 약 2만개의 그림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한다. 그림의 내용을 보면 사람, 새, 짐승 모양 외에도 추상적인 도형이 있고 또 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사냥하는 모습 같은 것도 있다. 특별히 Petroglyph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세 곳을 지정해서 구경할 수 있도록 Trail을 만들어 놓았다. 화산 분화구가 있는 곳에는 Petroglyph은 없으나 하이킹을 하도록 Trail이 되어 있다. 이곳 Petroglyph Monument 공원이 먼 곳이 아닌 도시 가까이 붙어 있어 교통이 편리함으로 방문자가 다른 Monument에 비해 많은 편이다. 연간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1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1. Visitor Center

제일 먼저 들려야 할 곳이다. I-40로 갈 경우에는 Exit 154에서 나와 Unser Blvd.를 이용, 북으로 3마일 정도 가서 Western Tr. 만나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면 된다. Montgomery/Montano Road로 간다면 Unser Blvd를 만나는 곳까지 가서 그 지점에서 Unser Blvd.로 약 2마일 남쪽으로 가면 된다(그림 1). Visitor Center에서 Monument 공원 전체의 지도와 상세한 Trail Map을 얻고 Petroglyph을 보러 갈 곳을 정해서 가야 할 것이다. Visitor Center 옆에는 Petroglyph은 없고 여기서 차를 타고 아래에 소개하는 곳 중의 한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전화: (505)899-0205

★웹사이트: www.nps.gov/pet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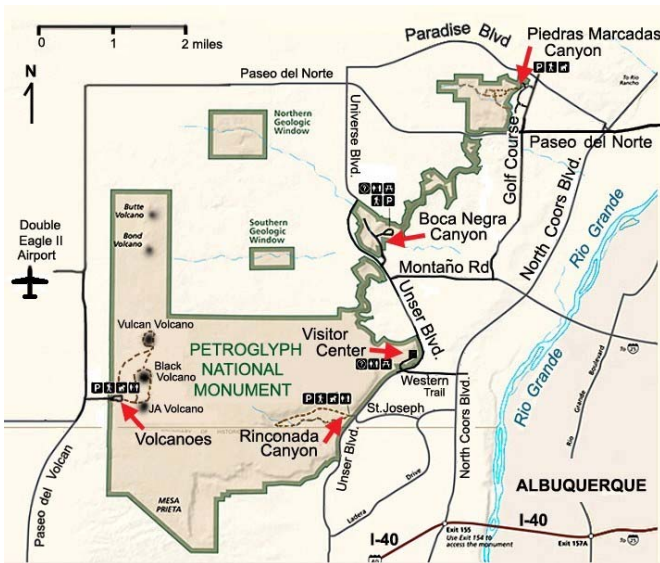


그림 1. Petroglyph National Monument의 지도.



사진 1. Petroglyph Monument의 Visitor Center

2. Rinconada Canyon

이 곳은 Visitor Center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다. Unser Blvd.를 따라 남쪽으로 1마일 내려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West Mesa의 서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캐년을 절벽을 따라 약 1 마일정도 걸어 들어가면서 절벽 밑에 흩어져 있는 페트로그림을 볼 수 있다. 올 때는 캐년 가운데 모래밭 길로 돌아오게 되는데 왕복 거리는 2½ 마일이다. 주차장과 화장실 시설이 있다. 주차는 무료이나 주차장을 여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까지다. 하이킹을 겸해서 구경하면 좋을 것이다.

3. Boca Negra Canyon

이 곳은 가장 많은 Petroglyph이 밀집되어 있고 Trail이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어린이나 노인들에게도 좋은 곳이다. 위치는 Visitor Center에서 나와 Unser Blvd.로 2마일 북쪽으로 가면 Montano Road를 만나는 사거리를 지난 후 나오는 Monument sign을 보고 들어가면 된다. 주차는 주중에는 \$1, 주말에는 \$2이며 공원을 여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다. 화장실과 피크닉 테이블 시설이 되어 있다.



사진2. Boca Negra Canyon에 있는 Petroglyph

4. Piedras Marcadas Canyon

Piedras는 스페인어로서 영어의 Petro와 같은 돌이나 바위를 의미하고 Marcadas는 영어로 번역하면 Marked, 즉 표시했다, 부호를 기록했다는 의미다. 즉 스페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보고 돌에 여러가지 표시가 많이 새겨진 것을 보고 Piedras Marcadas Canyon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주택가로 둘러 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의외로 조용하고 한적하여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온 느낌을 받게 된다. 비교적 여행객 보다는 알버커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다. 주차장은 잘 되어 있으나 화장실 시설은 없다. 위치는 Paradise Blvd.와 Golf Course가 만나는 사거리에서 한 블록 남쪽에 Jill Patricia라는 길로 들어가면 주차장이 나온다. 사거리 코너에 있는 Walgreen상점의 건너편이 된다. 약 1/2마일정도 캐넌으로 모래밭 Trail로 걸어 들어가면서 여섯 군데의 밀집된 Petroglyph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그림은 7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의 기간에 새겨졌다고 한다. 인디언의 그림이 대부분이지만 1650년대에 들어온 스페인 사람들이 그린 것이 더러 있다고 한다. 주차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제약도 없어서 알버커키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가장 편리한 곳이라 할 수 있다.



사진3. Boca Negra Canyon에 있는 Trail



사진 4. Piedras Marcadas Canyon 에 있는 Petroglyph

5. 분화구 (Volcanoes)

West Mesa가 생기게 된 것은 다섯 개의 분화구가 15만년 전에 내어 놓은 용암 때문인데 그중 세 개의 분화구가 좀 더 크고 뚜렷하게 보인다. 이 세 개의 분화구를 가르켜서 Albuquerque Volcanoes로 또는 Three Sisters로 부르기도 한다. 이곳을 하이킹 할 수 있도록 Trail을 만들고 주차장과 화장실,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여러 곳에 만들어 놓았다. 분화구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도 있다. 리오 그란데 강 서편에서 알버커키시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 된다. 제일 남쪽의 분화구는 JA Volcano라고 하는데 주차장에서 왕복 1마일이 된다. 그 옆에 있는 분화구는 Black Volcano인데 JA Volcano에서 Black Volcano를 한 바퀴 돌고 오면 0.8마일의 거리가 된다. 만일 Black Volcano에서 가장 높은 세번째 분화구 Vulcan Volcano를 둘러서 주차장으로 가는 Trail을 택한다면 2마일을 더 계산하면 된다. 멀리서 보는 분화구는 검은 돌밖에 볼게 없을 것 같지만 Trail을 걸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된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Black Volcano 위에 올라 가보면 Snakeweed라고 부르는 노란 꽃이 만발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사진 5. Black Volcano의 Trail 옆에 핀 Snakeweed.

이 곳으로 가는 길은 Paseo del Norte로 서쪽으로 끝까지 가면 우회전 하게 되면서 Paseo del Volcan이 되어 남쪽으로 가게 된다. 경비행기가 사용하는 Double Eagle Airport를 지난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온다. I-40로 갈 경우에는 Exit 149에서 Paseo del Volcan으로 북쪽으로 4.5마일정도 가면 된다. 이 곳 주차장 이용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사진 6. JA Volcano분화구 옆에 있는 주차장. Volcano로 가는 Trail이 여기서 시작된다.

Petroglyph Monument 소개를 마치면서 분화구에서 흘러 나온 용암(Lava)이 어떻게 Mesa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을 참고 자료로 추가했다. (그림2)에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말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Petroglyph 공원 내에는 이와

같은 그림과 사진 등으로 공원에서 볼 수 있는 동식물 또는 암석,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설명하는 시물을 많이 전시해 놓았다. 어린이들의 교육적 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너무 더운 계절을 피하고 마실 물을 충분히 휴대할 것을 잊지 않길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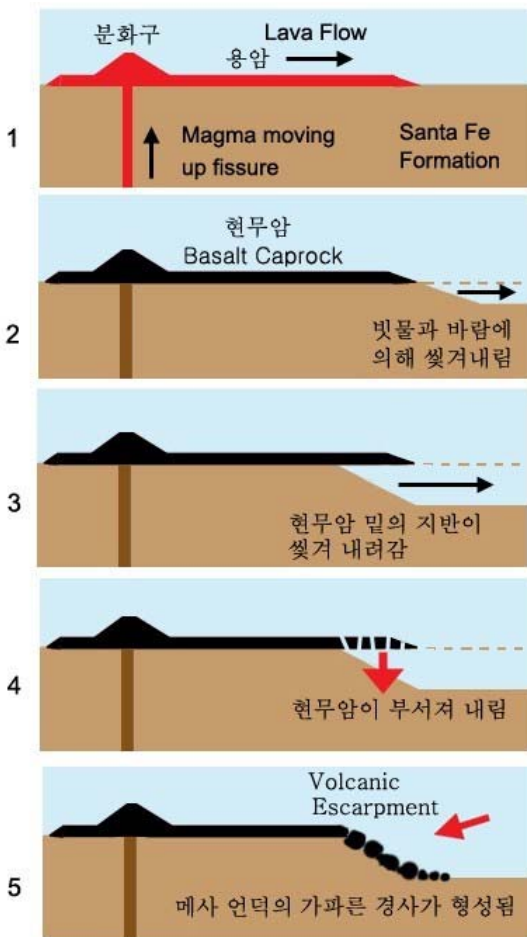


그림 2. 용암에 의해 메사가 만들어지는 과정.

A-1
 한국식품점
 (505)-275-9021
 1410 Wyoming NE
 Albuquerque NM 98112

ICHIBAN

Japanese Restaurant

一番 Japanese Food & Korean Food

Phone (505) 899-0095
 www.ichiban-alb.com
 10701 Coors Blvd. NW Albuquerque NM 87114

가장 핫했던 덴버 여행

김 준호 장로

이번 덴버 여행은 정말 exciting 한 여행이었다. 주목적은 business관계로 가기는 했지만 때마침 "메시아" 공연도 있어서 더 없이 감격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5월 16일 저녁에 덴버 베다니 루터란 교회에서 콜로라도 한인 합창단이 부르는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감상하였다. "메시아"는 하이든의 "천지창조"와 멘델스존의 "엘리아"등 3대 oratorio 중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왔다. 이 교회의 sanctuary는 음악 concert hall로 설계되어서 마이크가 없어도 창단이 부르는 음악소리는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잔향시간도 적당해서 60명이 부르는 소리가 마치 몇 백 명이 부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600여명의 청중들이 다시 한 번 헨델

의 신앙 간증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졌던 것이다.

이 곡이 나에게 친근해진 것은 1970년대에 L. A에서 공부하던 때였다. 내가 다니던 동양 선교교회의 성가대가 박환철씨의 지휘로 거의 전곡을 불렀었다. 이번에 덴버에서 같은 곡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잘 아는 부분을 합창단과 함께 따라 불렀다. 이곡은 제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것은 헨델이 3막 (3 Acts)으로 되어 있는 당시 이태리 오페라의 영향을 받아서 3부로 나누었다고 한다. 제 1부는 7일 만에 작곡하고, 2부는 10일, 제 3부는 7일, 도합 24일 만에 이 거대한 곡을 작곡했다니 보통사람으로써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식음을 전폐하고 이런 빠른 속도로 작곡했는데 제 2부의 할렐루야 합창을 완성했을 당시 헨델의 모습을 하인이 목격하고 다음같이 증언하였다. "헨델은 눈물을 흘리며 'I did think I did see all heaven before me and great God Himself.' 라고 외쳤다."

이 곡의 가사는 Charles Jennens (1700-1773)가 King James Version Bible을 토대로 만들었다. 제 1부는 메시아의 탄생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노래한다. 제 2부는 예수님의 고통, 구속제물로의 희생, 인간의 배척, 권능자의 권능 등을 노래한다. 제 3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의 감사를 노래한다. 이 메시아의 특징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음악으로 그려진 불멸의 명작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서곡은 fast-slow-fast 박자로 시작하고, 2번은 Comfort ye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1-3), 3번은 Every Valley Shall be exalted(모든 골짜기가 높아지리라, 이사야 40:4), 4번은 And Glory of the Lord(주의 영광, 이사야 40:5) 등이다. 제 1부 중에서 12번 For unto us a child is born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사야 9:6)는 메시아 전곡 중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대표적인 음악이다. 또 18번 Rejoice greatly, O daughter of Zion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스가랴 9:9-10)는 내가 좋아하는 곡 중의 하나인데, 우리교회에서는 아직 아무도 불러 본적이 없는 소프라노 독창곡이다. 그뿐인가, 제 2부 중 45번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내주님은 살아 계시니, 욥기 19:25-26)도 나의 애창곡이다. 제 1부는 21번 His yoke is easy, and his burden is light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마태 11:30)로 끝난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멍에는 무엇이고 그 짐이 가볍다니 잘 이해가 안 간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재산에 대한 욕심, 세속적인 욕심 등을 다 버린다면 주님이 말하는 짐은 가벼워지지 않을까?

제 2부는 22번 Behold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한1:29)로 시작된다. 2부에서는 여러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웅변적으로 그려놓은 주옥같은 노래들이 줄줄이 나온다. 특히 23번 He was despised (주는 멸시를 당하고)는 이사야 53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우리들은 최첨단 과학 문명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예언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오직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므로 알기알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우리들이 잘 알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므로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24번 Surely he hath born our grief (진실로 주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도다, 이사야 53:4-5), 25번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5) 등을 들으면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눈으로 보는 듯하다. 33번 Light up your head, O ye Gate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24:7-10)에서 중창이 나올 때는 우리 교회 성가대에서 함께 찬양 드리며 수고했던 정혜영 집사님께서 감동적으로 불렀다. 물론 최건영 권사님도 이 합창단의



PARK Fine Art
The Galeria 20 First Plaza NW Suite 27
Albuquerque, NM 87102

문화센터 강의 안내

성인, 주부취미반 (유화-oil painting과 파스텔화)

임시반 (포트 폴리오준비반, 덧생반)

강사: 박영숙
서양화가, 갤러리 Director,
UNM CE oil painting 강사

☐ 자세한 안내 문의 ☐

전화: (505)-764-1900 휴대: (505)-681-3859
www.parkfineart.com E-mail: contact@parkfineart.com

The Vaughan Company REALTORS®

Albuquerque 거주 27년과 부동산 중개업
11년 경력의 노하우로 여러분을
성심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직통전화: 505-797-6820
핸드폰: 505-249-8686
팩스: 505-822-0734
무료전화: 800-727-3697

6703 Academy NE Suite A, Albuquerque, NM 87109

테너 멤버로 열심히 불렀다. 제 2부는 유명한 할렐루야 합창으로 끝난다. 요한 계시록 19:6,11:15, 19:16 등을 주제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외친다. 이 합창을 들으며 영국 왕 조지2세가 기립하는 바람에 모든 청중은 물론 오케스트라 멤버들도 서서 연주했다고 해서 하나의 전통이 되었다. 우리들도 기립해서 들으며 큰 은혜를 받았다. 제 3부는 45번은 소프라노의 솔로로 시작되는데, 곡명은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내주님은 살아계시니, 욥기 19:25-26)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낙원에서 쫓겨나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인간들을 위해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이 노래는 듣는 사람들에게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한다. 감미로운 음악소리와 솔로리스트의 목소리는 더더욱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했다. 53번 Worthy is the Lamb that was slain (죽임을 당한 어린양, 요한계시록 5:9,12-14)과 Amen으로 메시야는 끝난다. 53번은 장엄하고 근엄한 소리로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과 배신한 자, 그리고 이 끔직한 죄에 동조한 자들을 힐책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앨범은 Colin Davis 및 London Symphony Orchestra (Phillips C71Ax300)의 것과 Charles Macherras 및 English Chamber Orchestra (Angel S 3705)의 것 두 세트이며 또한 이들의 연주를 highlight한 CD도 가지고 있다. 현대 나는 Charles Macherras를 더 자주 듣는데 위에서 지적한 청아한 소프라노 목소리에 반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또 Super Audio 와 DVD Audio가 최근에 개발된 High Fidelity 음악 technology 라고 선전하는데 사실 나는 몹시 실망하였다. 요사이 또 많이 선전하는 Blue Ray DVD가 나왔는데 Video의 해상도가 훨씬 선명할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아직 확인 못하고 있다.

Rainbow Research Optics는 지난 15년간 7500 sq. ft 되는 조그마한 시설을 빌려서 사업을 해왔다. 이태순 사장님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수없이 닥쳐오는 문제점들을 극복하며 힘든 일들을 헤쳐 나가면서 회사를 발전시켜왔다. 그 결실로 4년 전에 땅을 사고 새 건물을 건축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나도 새 건물 Floor Plan에 대하여 조언도 하고 특별히 Coating Department 전력배정 3상전원의 Neutral과 grounding 간의 다른 점들을 건축업자들에게 납득시키는데 신경도 많이 썼다. 결국 Centennial City의 Building Code 에 맞도록 조정하느라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작년 11월에 새 건물이 완성되고 Building 입주 허가를 받아 입주하게 되었다.

The Voice in the Wilderness is a Korean journal published for Korean residents living in New Mexico. Our goal is to help the Korean community of New Mexico. Especially the Ethnic Minority Local Church Task Force in the New Mexico Annual Conferenc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supports for publishing this journal. We distribute this journal at the major cities in New Mexico to find out Korean residents and make a network for helping each other. If you have question, contact Mrs. Choy by phone (505-553-1009) or email (kuchachoy@q. com).

G.F. Handel, Messiah Program	
{Part I}	{Part II}
1. 서곡	22. 합창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2. 서창 (테너) 내 백성을 위로하라	23. 영창 (알토) 주는 멸시를 당하시고
3. 영창 (테너) 모든 골짜기 높아지리라	24. 합창 진실로 주는 우리의 짐고를 지셨도다
4. 합창 주의 영광	25. 합창 주가 채찍 맞음으로
5. 서창 (베이스) 주 임하는 날 뉘 능히 당하리	26. 합창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8. 서창 (알토)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27. 서창 (테너) 주는 보는 자 비웃으며
9. 영창 (알토)와 합창 오 기쁜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28. 합창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걸
10. 서창 (베이스)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29. 서창 (테너) 주님의 마음이 상하여
11. 영창 (베이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30. 영창 (테너) 보라 주님의 서러움을
12. 4중창과 합창 우리를 위해 나셨다	31. 서창 (소프라노)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집은
13. 전원 교향곡	32. 영창 (소프라노) 주의 영을 구하리라
14. 서창 (소프라노) a) 그 지경에 목자들이 b) 주의 천사가 저희에게 임하고	33. 합창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15. 서창 (소프라노) 그 천사가 말하기를	36. 영창 (알토) 주께서 높이 오르사
16. 서창 (소프라노) 홀연히 천군천사가 나타나	40. 영창 (베이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17. 합창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41. 합창 우리가 결박을 끊어버리자
18. 영창 (소프라노) 기뻐하라 시온의 딸들아	42. 서창 (테너)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19. 서창 (알토) 그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43. 영창 (테너) 주께서 저들을 깨뜨리시리라
20. 영창 (알토와 소프라노) 내 주는 목자와 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44. 합창 할렐루야
21. 4중창과 합창 그 명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워	
{Part III}	
45. 영창 (소프라노) 내 주님은 살아계시니	
47. 서창 (베이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48. 영창 (베이스) 나팔 소리가 나매	
53. 합창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새 건물의 총면적은 3만 sq. ft, 총 공사비는 \$4.3 million인데 이것은 Albuquerque에 있는 유명한 Optics 회사와 거의 동일한 면적이고 비

용 또한 비슷하게 들었다. 새 건물의 특이한 점들을 언급한다면 직원들의 Well-being을 돕기 위한 Exercise Room이 1층에 Lunch Room 옆에 있다. 회사 안에 Exercise Room을 가진 회사가 미국에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IBM은 좋은 운동시설을 가졌다고 들었고 General Electric Corporate Research Center에도 있는데, 또 다른 회사들이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Lunch Room이 2층에도 있고 곳곳마다 좋은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어서 회사인지 아니면 근사한 맨션인지 착각할 정도이다. 어떤 사람은 한국의 대우전과 같다고 평했다. 우리 말에 "百聞而 不如一見(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다. 다시 말하면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새 건물을 둘러보며 이 말이 꼭 맞다고 생각 했다.

또 모든 작업실들은 Epoxy Paint로 천정, 벽, 바닥 등이 Coating 되어 있고 Heater 와 Air Conditioner에 HEPA Filter가 모두 붙어 있어서 먼지 제거에 크게 신경 썼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보통 반도체 회사에서 Class 10, 100, 1000을 따지는데 예로써 Class 1000은 먼지의 크기가 one micrometer 이상 되는 것들이 one cubic meter 안에 1000개 이하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하도 궁금해서 Air particle detector를 사서 실험해 보기로 하였다.

Rainbow Optics는 Military job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ITAR certification, ISO certification, OSEA control 등을 지켜야 하므로 함부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밖에 말해서도 안 되고 외부 방문객들은 특정한 방외에는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모든 직원들은 Security card로 출입하게 되고 Manager들만 모든 방을 드나들 수 있게 장치되어 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새 건물을 보면서 마음이 뭉클해졌다. 이런 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장실에서 이 사장님, Mrs. Lee 그리고 우리 내외가 합석한 가운데 감사기도를 드렸더니 이 사장님은 "아멘, 감사합니다" 하는 모습이 진실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사장님은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데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인 요셉 목사님이시다. 수원에서 고등학교를 한반에서 지냈던 것 같다. 김 요셉 목사님은 전형적인 미국분이신데 어찌나 한국말을 잘하시고 joke도 잘하시는지 우리들이 깜짝 깜짝 놀랐다. "학교 다닐 때 태순이한테 많이 맞았지요." 물론 joke이긴 하지만 웃지도 않고 정색하며 말하는데 정말인가 착각할 정도였다. 이 사장님의 한국지부회사에 2주년 기념예배에 초대하

여 설교를 부탁하니깐 요셉 목사님은 "태순이한테 한대 맞기 전에 해야지요" 하는 것이 아닌가! 요셉 목사님은 몹시 바쁘신 분인데 그날의 모든 일정을 접어 두시고 회사로 와서 모든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요셉 목사님이 이 사장님과 무척 가까운 사이이고 허물없는 친구임을 알 수 있었다. 그때 나도 한마디 했더니, 요셉 목사님은 "김 박사님, 목사 해도 되겠어요"라고 농담을 하면서 모두를 웃겼던 것이 생각난다. 또 목사님의 이야기 중에 미국 여행을 부인과 함께 마치고 입국하는데 여권에 도장 찍어주는 분이 머뭇머뭇 하며 머리를 가우뚱 하더라는 것이다. 미국인인 목사님은 한국여권을 가지고 있고 한국인 부인은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였는데 목사님이 유창한 한국말로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더니 또 한번 놀라는 기색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 폭소했었다.

우리들이 이 사장님의 안내로 새 건물을 구경하고 난 다음 날 한국회사에 김 고문님도 오셔서 또 돌아보시고 감탄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사장님이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피곤을 무릅쓰고 열심을 다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사실을 잘 몰랐던 것이다. 이 사장님은 세상이 캄캄해지고 몹시 힘들 때 나에게 전화해서 하소연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아름다운 새 건물이 청명한 덴버 하늘아래 우뚝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사장님의 투지력과 인내심을 보여주는 듯하다. 한국에서 혈혈단신으로 꿈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와서 이렇게 꿈을 실현한 것을 보면서 정말 축하드리는 바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 가지 여담은 고문님, 이사장님, 그리고 우리 내외가 사장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젊은 청년 직원이 불쑥 나타나서 어른들에게 큰절을 하겠다고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것이었다. 우리는 당황하였다. 이것은 한국 비디오에서만 보던 장면인데 막상 닥치고 보니 몹시 어색하게 느껴졌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 직원은 우리들이 자기를 잘 이끌어 준 것을 큰 절로 보답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충성스런 직원이 있다니, 회사의 앞날이 정말 든든하구나" 하고... 이 사장님의 꿈은 실현되었는데 Now What? 현재 경제 형편이 나쁜 터이라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는 Key Member들을 다 불러놓고 한마디 하였다. 한국 어느 회사의 성공 모토를 다음처럼 써놓고 (첫째 즉시 한다. 둘째 반드시 한다. 셋째 될 때까지 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이 Motto를 마음에 새기고 최선을 다해 일해서 금년 목표액을 달성하자"고...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NM 87109
phone (505) 797-8000
fax (505) 797-4090

Lunch
11:00-2:0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9:30 Fri-Sat
Closed on Sundays

Lunch
11:00-2:30 Mon-Sat

Dinner
4:30-9:00 Mon-Thur
4:30-10:00 Fri-Sat
Closed on Sundays

KOREAN B.B.Q HOUSE
Sushi & Sake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6
phone (505) 338-2424
fax (505) 338-2426



ALLSTAR REALTY
OUR NAME SAYS IT ALL™

김영신 부동산

Associate Broker
7001 Prospect NE, Ste. 200
Albuquerque, NM 87110
yongfre@yahoo.com

505.321.7695 (cell)
505.888.1700 (office)
505.888.9650 (office fax)



시세이도 화장품
윤상옥 (Beauty Advisor)
H: 890-4018
B: 883-5900

SHISEIDO
Dillard's 백화점
2100 Louisiana Blvd Ne Ste 255
Albuquerque, NM 87110

{종교 소식}

기독교 미주 성결교회 뉴멕시코주 한인 성결교회

최치규 목사님, 전종철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새벽기도

§ 시간: 5:30 am (매일)

§ 장소: 9607 Menaul NE, Albuquerque, NM 87112
(408) 334-7227

로스 알라모스 교회 (Los Alamos, Santa Fe)

노강국 목사님

주일에배 1부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에배 2부

§ 시간: 2:00 pm

§ 장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매달 넷째 주일은 연합예배입니다.

§ 시간: 11:30 am

§ 장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박종인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1:00 am

§ 장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11

목요일 6:00 pm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님

주일에배 (Worship)

§ 11:00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in English)

§ 10:00 am (Sunday)

수요일예배 (Wed. Night Worship)

§ 7:30 pm (Wednesday)

새벽기도회

§ 5:30 am (Mon-Fri)

§ 6:00 am (Sat.)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님

주일에배

§ 시간: 12:00 am (한국어 예배)

1:00 pm (Indian 영어예배)

§ 장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 연락처: 505-453-5461

고소한 보양 별미 콩국수



♣영양포인트

콩에는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콩 단백질의 하나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 이 성분은 뼈의 손실을 억제하고 골밀도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여 폐경기 이후 여성들의 골절과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며 우울증, 홍조증 등 여성호르몬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켜 준다. 또한 콩은 체내 콜레스테롤의 축적과 산화를 막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으며 유방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콩의 영양소를 그대로 살린 콩국수로 건강하게! 그리고 고소하게 여름을 즐겨보자.

♣재료

메주콩(백태) 1컵, 깨 2 큰술, 소면 200g, 토마토 또는 수박, 오이 ½개, 삶은 계란, 소금 약간

♣조리법

- 콩에 물 3컵을 부어 5시간 이상 불린다. (2배 정도 불어난다)
- 불린 콩을 물에 한번 씻은 다음, 물 2컵을 붓고 끓인다. 뚜껑을 덮고 끓이다가 5~6분 후 물이 뚜껑 밖으로 넘치면 뚜껑을 열고 5분 정도 중불로 더 끓인다.
- 삶아진 콩을 찬물에서 손으로 살살 비비면서 껍질을 벗겨준다.
- 믹서기에 불린 콩(2컵 분량), 깨 2큰 술, 물 2컵을 넣고 곱게 갈아준다.
- 이 콩국에 시원한 생수 3컵을 부어 섞어준다. 기호에 따라 물 양을 조정하고 소금간을 해준다.
- 팔팔 끓는 물에 소면을 넣고 삶아서 찬물에 헹궈준다. 그릇에 국수를 담고 콩 국물을 붓고 계란, 오이채, 토마토를 곁들여 낸다.

출처: 서울 아산병원 웹진-이성임 영양사

작심삼일을 이겨내는 최고의 금연법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고 마는 지긋지긋한 '금연'. 최근 사회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흡연족'은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서러운데 비흡연자들의 싸늘한 눈초리까지 감당해야 할 판이다. 금연이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금연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연구 결과가 있다.

위스콘신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여러 가지 금연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니코틴 패치와 금연사탕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연구진은 성인 1,504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약물이나 치료방법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은 채 위약 대조 연구(효과를 밝혀내고자 하는 약물과 위약의 효과를 비교하는 것)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험 참여자들이 8주간 적어도 하루에 10개비의 담배를 피우게 하였다. 그 후 실험 참여자들을 여섯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 별로 다른 금연 치료를 실시하였다. 연구진들이 이용한 치료법은 금연사탕, 니코틴패치, 부프로피온(금연 유도 약물), 니코틴 패치와 금연사탕 병행, 부프로피온과 금연사탕 병행, 그리고 위약복용 방법이었다. 또한 모든 실험 참여자들은 6주 동안 금연 상담도 받았다.



연구진들은 실험 참여자들이 담배를 끊은 날로부터 1주, 8주, 6개월 후의 재흡연율을 조사했다. 위약복용법을 제외한 모든 치료법들이 금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으나 재흡연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치료법은 니코틴 패치와 금연사탕을 병행한 방법이었다.

장기간 흡연을 한 사람일수록 금연을 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금연에 실패했다는 자책감을 갖거나 자신의 의지 부족에 의기소침할 필요 없이 이러한 금연 보조제를 이용해 금연을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출처: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February 2010

{생활 속 건강 2}

날씬한 당신, 그러나 '마른 비만' 이라면...?

다이어트 열풍으로 거리는 요즘 날씬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다. 너도 나도 멋진 옷을 입고 날씬한 몸매를 자랑하지만 현대인의 상당수가 '마른 비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뚱뚱한 사람만 비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비만을 측정하는 척도는 복부 지방, 즉 내장 사이의 지방 분포 정도라고 한다.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들 사이에서 복부 비만은 일종의 유행처럼 퍼져 있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복부 지방은 얼마나 해로울까? 프래밍햄 심장연구회 연구진들에 의하면 복부 지방은 칼슘침착과 동맥경화의 지표이며, 염증성 물질들을 유발하고 호르몬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

반면 피하 지방은 체온을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또한 허벅지나 엉덩이 지방은 심장 질환 등 순환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해로운 지방산을 줄여주고 동맥경화를 막는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고 한다. 똑같은 몸무게가 나간다고 해도 신체의 어느 부분에 지방에 더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에 따라 건강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복부 지방 정도는 보통 체질량 지수로 비만 여부를 측정하지만 체질량지수는 내장 지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또한 여성의 경우 손으로 잡히는 피

하 지방량이 남성보다 많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측정 기준도 다르다고 한다.

복부 지방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이요법과 꾸준한 운동 밖에 없다. 계단 오르기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한 경우 가장 적은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이다. 출 퇴근 및 점심시간에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면 근력강화와 함께 복부 지방도 쉽게 빠진다고 하니 '일석이조'가 아닐까?

출처 : Harvard Health Letter, December 2009

Break out of your shell... EXERT CONFIDENCE!



Watch them transform and become more:

- Self-Confident
- Disciplined
- Flexible
- Coordinated

Give your kids the edge they
need to succeed while having
great fun.

Dynamic Taekwondo Center
5850 Eubank # B - 35
(505) 271-2000
New master in town
Master Jaeshin CHO
CALL NOW !!!!

I'll honor all previous Y'kim's,
pride tkd students



**Special
Introductory class
\$29.95
FREE Uniform**

Expires on June 30 2010.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알버커키

Albuquerque

한국식품점

Korean Grocery

A-1 Oriental: 1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9021)

Airang Oriental: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Dinho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Blvd NE,
Albuquerque
(505-883-266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A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lbuquerque
(505-255-9634)

Fu-young 3107 Eubank #16
NE, Albuquerque
(505-298-8989)

Fuji Yama: 5001 Central
Ave NE, Albuquerque
(505-265-9774)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lbuquerque
(505-899-0096)

I Love Sushi: 6001 San
Mateo Blvd NE,
(505-883-3618)

Korean BBQ: 320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338-2424)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lbuquerque
(505-296-8568)

Midori Susui 6205-B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830-2507)

Pacific Rim Asian: 10721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1-0920)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lbuquerque
(505-890-2838)

Samurai: 9500 Montgomery
NE, Albuquerque
(505-275-6601)

Shogun: 3310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65-9166)

Sizzler: 7212 Menaul Blvd,
Albuquerque
(505-833-5755)

Sushi & Sake:
5901 Wyoming Blvd NE,
Albuquerque 87109
(505-797-8000)

Yen Ching: 4410 Wyoming
NE, Albuquerque
(505-275-8265)

Yummi House: 1404
Eubank Blvd NE,
Albuquerque
(505-271-8700)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츄럴: 2302 Morris
NE, Albuquerque
(505-453-5461)

공인회계사 CPA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5850 Eubank NE,
2270 Wyoming NE,
9411 Coors NE,
1418 Juan Tabo NE,
6124 4th St NW,
1903 Coors SW,
11816 Central SE,
4312 Coors SW,
1649 Bridge SW,
Albuquerque
(505-999-8222)

Stadium Liquor 1306
Broadway SE, ABQ, NM
87103
(505-242-8542)

모텔 Hotel/Motel

Ramada Inn: 2015 Menaul
Blvd NE, Albuquerque
(505-881-3210)

부동산 Realtors

그레이스김 Grace Kim:
Kerzee Real Estate
(505-315-5123)

김영신 Yong Shin Kim:
Jade Southwest Realtors
(505-321-7695)

수잔리 Susan Lee:
Coldwell Banker
(505-934-8949)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최귀분 Gui B. Bonaguidi:
Vaughan Company
(505-249-8686)

세탁소 Dry Cleaners

Barbone's Cleaners: 3812
Carlisle Blvd NE,
(505-881-4466)

Executive Cleaners: 1214
Juan Tabo Blvd. NE, ABQ,
NM 87107
(505-299-5858)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NM 87108
(505-266-3231)

신발 Shoes

Rio Shoes: Coronado Mall
6600 Menaul NE,
Albuquerque
(505-883-9009)

의류 Clothes

Best Outlet: 3300 San
Mateo Blvd NE,
Albuquerque
(505-884-2202)

Central Outlet: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255-4345)

Dot Clothing Co: 7200
Montgomery NE Suite C,
Albuquerque
(505-830-9400)

GEM X Imports 10701
Coors Rd. NW ABQ, NM
87114
(505-899-3420)

J-1 Import 4410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1-6355)

NEXT Clothes/Gift 4201
Central Ave. SW ABQ,
NM 87105
(505-839-8627)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Hair Dynamic(Ashley): 1500
Wyoming Blvd. NE
(505-296-2336)

Matthew Lee's Hair
Style(홍정희): 11901
Menaul NE,
(505-271-1056)

Nob Hill Barber Shop
(Sunny):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Pance Hair Salon(Tina):
4300 Ridgcrest Dr NW
(505-907-9229)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종교 Church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lbuquerque, NM 87110
(505-271-8031)

뉴멕시코 성결교회: P.O.Box
94855, Albuquerque, NM
87199
(408-334-7227)

샌타아 장로교회: 10704
Paseo Del Norte NE,
Albuquerque
(505-823-1678)

알버커키 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505-803-7716)

알버커키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505-331-9584)

주님의 교회: 12120 Copper
Ave NE, Albuquerque
(505-903-2297)

주택융자 Loan Officer

김미경 Mikyong Kim
(Homemortgage) 200
Lomas Blvd. NW 11flow
87102
(Office 505-765-5098)
(cell 505-379-1089)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치과 Dental Clinic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커피 재료 Coffee

Moons Coffee & Tea: 1605
Juan Tabo NE,
Albuquerque
(505-271-2633)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 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96-0336

한의학 Acupuncture

Dr. Chang: 4716 Central
Ave SE, Albuquerque
(505-710-7504)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등록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Dr. Park: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 #B
87113 (505- 514-2900)

화랑 Gallery

Park Fine Art
Gallery(박영숙): 20 First
Galleria Plaza NW, Suite
27
(505-764-1900)

화원/원에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lbuquerque
(505-345-6644)

사진관 Star Image

6600 Menaul Blvd. C-4
Abq, NM 87110
(505)883-3112

중재서비스

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lbuquerque, NM 87112
(505-332-9249)

리오란초

Rio Rancho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4300 Ridgcrest
Dr. SE Suite#O Rio
Rancho, NM 87124

Osaka Restaurant: 1463 Rio
Rancho Blvd, Rio Rancho
(505-892-7778)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클로비스 Clovis

종교 Church

클로비스 순복음 교회
Gospel Clovis Full Korean: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62-4510)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건강식품 Health Food

인생내추럴: Los Alamos
(505-662-9681)

종교 Church

산타페 한인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412 -5420)

산타페 Santa Fe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Maki Yaki: 3003 S. St.
Francis Dr., #C, Santa Fe
(505-820-1930)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Osaka (Traditional
Japanese Grill): 3501
Zafarano Dr. Santa Fe,
NM 87507
(505-471-6698)

종교 Church

New Beginning Church
480A County Rd. 84 Santa
Fe, NM 87506
(505-577-4572)
(cell 505-577-4572/황세희씨
남편 Damon Duran)

갤럽 Gallup

신발 Shoes

Rio Shoes: 1300 I-40
Frontage, Ste 304B, Gallup
(505-722-8396)

모텔 Hotel/Motel

Day's Inn: 3201 W. HW66,
Gallup
(505-863-6889)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한인 식당

Korean Restaurant

Five Brother's Chinese:
1001 E. University Ave.,
Cl, Las Cruces
(575-496-2445)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0098)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종교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1441 East Mesa Las Cruces
NM 88001 (915-276-2773)

화밍톤

Farmington

종교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rington, Farmington
(505-453-5461)

가게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벼룩 시장 FLEA MARKET

*** 이 난은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사용됩니다. 광고하실 분은
505-553-1009나 kuchachoy@q.com으로
연락주세요 ***

연방 국세청 IRS - Tax Advocate Service에서
지정한 본 회사는 뉴멕시코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납세자를 위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각종 세금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세무처리 해 드립니다.
한국어 상담은 '개일' 을 찾으세요.

Low Income Taxpayer Clinic
Imperial Services Corp.
Nonprofit Organization
7103 4th Street NW, Unit O-3
Albuquerque NM 87107
Tel: 505-503-7252
www.imperialnm.org

구인/구직

렌트/부동산

룸 렌트 (Room Rent)
Now available 2 rooms
of 3 bedroom
Rent: \$300
Deposit: \$100, Utility
divided by using
room number no
smoking, no pet
(505) 352-5775
(505) 331-8607

사고/팔고

정보마당

도와주세요



알버커키 박영숙 화가(www.youngsookpark.com)와 김수영 화가(www.geocities.com/hongsooyoungstudio)의 작품들입니다.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New Mexico

뉴멕시코주 한인회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NM 87112
(505) 271-1777 www.kaanm.com

stamp here

61 cent 우표
붙인 후 반으로
접어서 발송

To:

